

2007. 5. 7 제166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5. 7 제166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세필드市の 문화산업지구제

도시경영·경제

1. 성평등 계획 시행 (런던)
2. 외국 특허출원 비용 지원 (도쿄)
3. 프로젝트 제안 시민에 장려금 지급 (캘리포니아주 월넛크리크市)
4. 관광분야 강화정책 발표 (브라질 쿠리치바市)
5. 관광산업 진흥계획 수립 (도쿄)

디지털도시

6. 샌프란시스코와 디지털 자매결연 (파리)
7. 휴대전화나 PC로 열람가능한 지도 서비스 (일본 오카자키市)
8. 전자학생증을 이용해 등교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 (북경)

복지·문화

9. 이민자 대상 영어교육 실시 (캘리포니아주 산타애나市)
10. 市 문화재를 개인에게 양도해 부가수입 기대 (파리)
11. 영·유아 성장을 돕는 '가정 강화 프로그램'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
12. 피임 비둘기집 설치 (파리)

목 차

13. 숲에서 펼쳐지는 ‘자연·철인경기’ (독일)
14. 의료안전 지원센터 설치 (도쿄)
15. 노인과 장애인 세대 대상 대형쓰레기 반출 서비스 (일본 히노市)
16.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개조사업 시행 (북경)

도시환경

17. 오염 취약층에게 대기오염 정보 제공 (런던)
18. 건설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제안 (영국)
19.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 (캘리포니아주 베니스市)
20. 가정용 소형발전기 설치 촉진 (영국)
21. 거리 금연 조례 시행 (도쿄都 치요다區)
22. 수질감사에 시민 참여 유도 (브라질 쿠리치바市)

도시교통

23. 야구장으로 연결된 대중교통 요금 인하 (볼티모어)
24. 자전거 이용자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런던)
25. 11세 이하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무료 (런던)
26.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전략 시행 (영국)
27. 시각장애인 보행 보호를 위한 가이드 밴드 설치 (파리)

도시계획·건설·주택

28.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 (도쿄)

방재·안전

29. 도시재난 관리체제 구축 (영국 에식스市)

[벤치마킹 사례]

세필드市的 문화산업지구제

<주요 내용>

- 세계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던 영국 세필드市는 쇠퇴하는 철강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도심을 재활성화하고자 문화·미디어 산업 집적에 기초한 ‘문화산업지구제’(CIQ: Cultural Industries Quarter)를 세계 최초로 추진함.
 - 이 제도는 문화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창의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임.
 - 1978년 리드밀(Leadmill) 아트센터, 1982년 요크셔 예술협회, 1986년 레드테이프 스튜디오가 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전략 추진의 실마리를 제공했음.
 - 문화산업지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8년으로, 시의회가 주도해 세필드역 주변 30만m² 정도를 지정함.
 - 역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국립대중음악센터, 왼쪽에는 쇼룸극장과 문화기업제작센터, 시내중심가에 세필드 할람대학(Sheffield Hallam University)과 사이트 갤러리, 세필드 독립영화사, 대중음악센터 등이 있음.
 - 1996년에 문화생활과 문화산업 발전을 포함한 세부적인 ‘도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됐고, 공청회를 거쳐 1998년 ‘문화산업지구의 전략적 비전과 발전’, 1999년 ‘문화산업지구 사업계획’이 수립됨.
 - 2002년에 5개년 계획이 완료됐으며, 2012년에 종료되는 10개년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자금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 등이 사업자금으로 활용됨. 특히 유럽의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EU 지역개발자금’이 지속적으로 제공됨.

- 문화산업지구 내에는 시청각사업센터와 문화기업제작센터, 쇼룸극장 등 주요 시설물이 있음.
- 1988년 설립된 ‘시청각사업센터’(AVEC: Audio Visual Enterprise Center)는 음악·녹음·사진·디자인·방송·영화비디오·훈련센터·녹음스튜디오 등 15개의 문화 관련 기관(업)에 대해 제작공간을 제공함.
- 1993년 시의회가 민간 개발회사와 공동으로 문화산업 집적시설인 케닝빌딩을 건설하고 이곳에 디자인, 뉴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업에 제작·전시공간과 교육·훈련공간 등을 제공하는 ‘문화기업제작센터’(Workstation Cultural Business Center)를 개소함. 이곳은 문화산업지구 내 선도시설이며 할람대학과 산·학·연 협력체계가 형성됨.
- 내셔널 로터리(National Lotteries)의 지원으로 1995년 개관한 ‘쇼룸극장’(Showroom Cinema)은 문화지구 내 소비기능을 담당함.

<해설 및 평가>

- 문화산업지구는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고 지식 기반의 경제와 문화경제가 새롭게 출현·성장하는 산업구조 전환기에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의의를 가짐.
- 2002년 지역 내 전체 400여 개 문화기업체 가운데 CIQ에 입주한 기업이 약 150개(영화·비디오, 음악 기업이 전체의 30%를 차지)에 이르고, 고용인력은 2000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경제 재활성화에 효과적이었음.
- 셰필드市 문화산업지구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산·학·연·관 협력의 모범사례로서 의의도 가짐.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EU의 협조 아래 전략 수립과 추진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으며, 셰필드 할람대학은 CIQ 전략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구와 인적자원 양성 기능을 담당함.
- 셰필드 시의회는 전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산업지구 관리기구’(Sheffield CIQ Agency)를 설치·운영함.
- 문화산업지구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기존의 문화활동 중심에서 탈피해, 문화·과학·기술이 어우러지고 생산·연구·소비 기능이 복합된 클러스터 기반 전략으로 추진됐다는 점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국내에 도입된 문화 관련 지구제는 크게 두 가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제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산업진흥지구제임.
 - 문화지구제는 문화시설이 밀집돼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함. 서울시의 경우 2002년 4월 인사동 일대를 처음 문화지구로 지정한 이후 현재 대학로와 홍대, 신촌 지역에 추가 지정을 고려하고 있음.
 - 문화산업진흥지구제는 문화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아직까지 지정된 예가 없음.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및 지원내용>

구 분	문화산업진흥지구
관 련 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관광부)
지정요건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지역임.
지원내용	<p><각종 부담금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면제 · 산업단지 내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p><세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제작자, 투자회사, 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나 창업자·창업을 지원하는 경우 세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제 지원 · 문화산업단지와 진흥시설 조성·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와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감면조치 가능 <p><지방자치단체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해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음. <p><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 기존의 문화지구제가 지역의 문화적 기반 조성 및 문화활동의 촉진에 크게 기여한 바는 부인할 수 없으나, 문화적 활기와 다양한 문화활동이 상업화·산업화로까지 연결되지 못한 점은 한계라 할 수 있음.
-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셰필드의 문화산업지구제가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문화적 활기와 자원이 풍부하고 문화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는 도심부 일정 장소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지구를 지정함.
 -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함.
 - 대상지역으로는 충무로 일대 영화산업진흥지구와 동숭동·이화동 일대 공연 예술산업진흥지구 등이 있음.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 이 계획은 문화콘텐츠 분야 기획 및 제작지원을 위한 산업지원 인프라 조성 및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안내·문화 및 편의시설 개선·확충, 거리환경 개선사업, 영화·공연 관련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등 다각적인 장소마케팅 사업 추진, 문화산업지구 주변의 귀금속·보석·의류패션·역사문화관광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 전략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체화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문화산업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기존의 문화활동 및 소비 중심의 전략에서 문화 관련 산업기반의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
- 최근 전통 제조업 분야의 침체와 물리적 환경의 슬럼화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심권 경제의 재활성화에 기여함.

/정병순 도시경영부 연구위원(jbs66@sdi.re.kr)

1. 성평등 계획 시행 (런던)

○ 런던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성평등 계획(Gender Equality Scheme)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2006 평등법’(2006 Equality Act)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미 추진 중인 ‘1차 성평등 계획’의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임.

- 도시별 성평등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기 3년 전인 2003년부터 런던시는 성평등 계획을 시행해 왔음.

- 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사업에 우선순위를 뒀는데, 그 결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를 지원하는 가정폭력 전문 법조인 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가정폭력 살해사건의 발생 비율이 반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냈음.

- ‘2007~2010년 런던 성평등 계획’에는 성별 임금 차이, 기업 내 여성비율 등 고질적인 여성의 경제적 지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여성 안전, 교통, 육아 등 부문별 과제도 함께 다룰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410)

(www.london.gov.uk/mayor/equalities/gender_equality_scheme.jsp)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의 여성정책은 평등법에 기반을 둔 양성평등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음.

·런던시는 양성평등뿐 아니라 장애인, 소수인종,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평등정책이 우수해 2007년에 3개 기관으로부터 평등우수도시상을 수상함.

·런던시의 여성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 직속의 여성정책관을 임명하고, 각 분야에 걸친 여성 이슈에 대해 시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정역할을 했기 때문임.

·가정폭력과 성폭력 철폐를 역점과제로 정하고, 행정역량 집중 및 지속적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서울시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계획(2007-2010)’을 수립했음.
 - 민선 4기 들어 전 행정부서가 참여하고 시장이 주재하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음.
 -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은 런던市처럼 정책 주류화를 통해 여성정책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skhee@sdi.re.kr)

2. 외국 특허출원 비용 지원 (도쿄)

- 도쿄都 지적재산종합센터는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이미 외국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타사가 허가 없이 모방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함.
 -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서 활약하려는 도쿄都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임.
 - 중소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기술과 권리를 보호받아 경영기반이 강화되고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음.
 - 외국 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은 특허출원 비용, 변리사 비용, 번역료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지원금액은 경비의 절반 이내에서 300만 엔(약 2400만 원)까지임.
 - 해외 피해대책 비용 지원사업은 피해조사 비용, 감정(鑑定) 비용, 피해를 준 회사에 대한 경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금액은 경비의 절반 이내에서 200만 엔(약 1600만 원)까지임.
 - 도쿄都 지적재산종합센터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활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都가 설립하고 도쿄都 중소기업진흥공사가 운영함.
- (www.tokyo-kosha.or.jp/chizai/joseikoubo.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是 중소기업이 더 이상 가격경쟁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 등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이 독자적으로 지적재산을 만들어 권리화하도록 했으며, 지적재산을 사업화하거나 활용해 경쟁우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쿄都 지적재산종합센터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더 이상 가격경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이러한 취지로 서울시는 산학협력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의 권리화, 활용, 침해 등에 대한 대책 수립에 도쿄都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시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창호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sch@sdi.re.kr)

3. 프로젝트 제안 시민에 장려금 지급 (캘리포니아주 월넛크리크市)

- 캘리포니아주 월넛크리크市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장려금을 지급함.
 - 제안 부문은 주택, 교육, 레크리에이션, 문화예술 등이고, 장려금 규모는 7만 5000달러(약 7000만 원)임.
 - 선정기준은 문화적 다양성 촉진 가능성, 1회 자본 지출을 통한 장기적인 편익성 고려, 재원 조달방법, 민간·공공 파트너십 증진 등이며 지난 2년간 선정되지 않은 제안이어야 함.
 - 제안자는 제안 배경, 관련 정보와 자료, 총 사업 예산 등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www.walnut-creek.org/header.asp?genericId=3&catId=17&subCatId=1205)

4. 관광분야 강화정책 발표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2007년 4월 ‘쿠리치바 패스포트’ 출시와 市 관광 자문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관광분야 강화정책을 발표함.

- 호텔, 식당, 상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리치바 패스포트는 쿠리치바市 관광 패키지를 판매하는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관광·레저·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
- 상가, 식당, 바 등에서 10~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1회용 쿠폰도 포함됨.
- 첫 번째 발행된 쿠리치바 패스포트는 총 1만 5000개로 유효기간은 2007년 9월까지임.
- 市 관광 자문위원회는 관광분야에 투자할 자분을 구하고 다양한 정책을 연구·검토할 계획임.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8846)

5. 관광산업 진흥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는 5년 후 연간 7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연간 5억 명의 일본 내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도쿄都 관광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활력이 넘치고 품격 있는 ‘세계도시 도쿄’를 실현해 나가기로 함.

- 都는 2001년에 관광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관광산업 진흥계획(2002~2006)’을 수립해 추진한 바 있음.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관광의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른 올림픽 유치, 하네다 공항 국제화 진척, 저출산·고령사회 도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도쿄都는 하네다 공항의 국제화가 진척되고 있어 근거리 아시아 항공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자의 여행 의욕이 높아 새로운 수요층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7년에 연간 673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30위 정도임.
- 현재 세계적으로 관광을 통한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둘러싼 도시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추세임.
- 도쿄都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소비 확대, 고용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관광소비액이 5조 엔(약 40조 원), 생산효과가 10조 7000억 엔(약 85조 6000억 원), 고용효과가 66만 명으로 추산됨.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7/03/70h3t100.htm)

한줄 뉴스

<샌프란시스코>

- 2007년 4월부터 市 교통국 홈페이지에서 철도승차권과 주차권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무료로 배달
- 2007년 3월 29일부터 통합 민원콜센터 311 전화 서비스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145개 언어로 제공
- 2300개로 나뉘어 있던 시청 전화번호를 단일회선으로 만들어 시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911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일상적인 전화문의를 줄이는 효과 기대

디지털 도시

6. 샌프란시스코와 디지털 자매결연 (파리)

○ 파리는 인터넷 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디지털 패스웨이 프로그램(DPP: Digital Pathway Program)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시와 디지털 자매결연을 함.

- 샌프란시스코대학과 멀티미디어 회사(BAV: Bay Area Video Corporation)가 지원하며, 프랑스의 이 분야 300개 회사가 매년 몇 백만 명의 파리 시민이 모이는 '인터넷망 협회 2000'(l'association Réseau 2000)을 통해 지원함.

- 파리의 인터넷 낙후 지역 젊은이 15명을 선발해 비디오,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디지털 전자음악 제작기술을 교육하고 있음.

· 이들은 2007년 5월 샌프란시스코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가수 싱클레어의 비디오클립을 소개할 예정임.

· 같은 프로그램이 샌프란시스코시에서도 활용돼 디지털 기술을 서로 교환하고 문화를 공유할 계획임.

(www.paris.fr/portail/Economie/Portal.lut?page_id=105&document_type_id=2&document_id=28220&portlet_id=824)

7. 휴대전화나 PC로 열람가능한 지도 서비스 (일본 오카자키시)

○ 일본 오카자키(岡崎)시는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시민과 사업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도시계획 정보 등을 휴대전화나 PC에서 열람할 수 있는 '우리 거리 가이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함.

- 통합형 GIS로 불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사적 등의 시설정보와 도시계획 내용과 용도, 지구계획이나 도시계획 도로 등 도시계획

정보를 볼 수 있음. 붕괴우려가 있는 급경사지나 피난소 등의 방재정보도 열람할 수 있음.

- 휴대전화에서는 시설정보를 중심으로 한 관광 가이드맵이나 시민들의 모임 장소 확인 등의 활용이 가능함.

(요미우리신문, 2007. 4. 4)

한줄 뉴스

- 캘리포니아주 버뱅크市, 2007년 5월 중순부터 레스토랑의 노천공간, 공원,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등 야외공간에서도 제한적으로 흡연금지제도 시행
- 로스앤젤레스市 경찰국, 순찰차에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장착 결정
·범인 검거 시 경찰의 인종차별과 과잉진압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의혹을 받는 경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 기대
- 베를린市 도시개발부, 야생 멧돼지 출현에 대비한 대처방법 안내

8. 전자학생증을 이용해 등교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 (북경)

- 북경市 서성區가 추진하는 ‘안심 프로젝트’에 따라 전자학생증 시스템을 시범 초등학교 정문에 설치함. 초등학생이 정문에 도착해 전자학생증을 접촉하면 부모에게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됨.

- 전자학생증을 이용한 학부모와의 연락 시스템은 향후 학생 안전을 위한 등하교 시간 통지 외에도 학교 전달사항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업참여도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등 학생지도를 가정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임.



- 전자학생증을 이용해 학생 안전 시스템과 가정이 의사소통하는 제도에 대해 학부모의 기대가 크며 시범학교 학부모의 반응도 좋음.

(www.bjd.com.cn/bjxw/bjsq/cgld/200703/t20070320_189024.htm)

9. 이민자 대상 영어교육 실시 (캘리포니아주 산타애나市)

○ 캘리포니아주 산타애나市는 약 51%의 시민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총 42억 원을 투자해 약 5만여 명의 이민자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현재 슈퍼마켓이나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이민자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 市 관계자는, 영어를 잘 못하는 대부분의 멕시코 이민자는 주로 급여가 낮은 식당에서 근무하는데, 미국인 고용주와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고 영어가 능숙해지지 않으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임금도 많이 받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市 재정에 영향을 준다고 말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주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市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市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홍보마케팅에 약 3억 원을, 컴퓨터 등 교육시설 확충에 약 6억 원을 투자할 예정임.

(www.latimes.com/news/local/la-me-english9apr09,1,4266805.story?coll=la-headlines-california)

10. 市 문화재를 개인에게 양도해 부가수입 기대 (파리)

○ 파리市는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목표로 계약을 통해 문화재 일부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함. 파리市 뱅센 숲이나 불로뉴 숲에서 뜻말이 붙은 개인 소유 공간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에펠탑이나 경마장 등에서도 이런 곳을 볼 수 있게 될 것임.

- 개인이 문화재 내부 공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게 함.
·건축가 르두가 만든 원형 정자(rotonde)나 파리市 19區에 있는 스탈린그라드 광장에는 식당을 만들 계획임.
- 상업활동으로 생기는 수입의 일부는 市에 반납하고 市는 이 부가수입으로 사회편익시설을 만듦.
·예를 들어 롱상 성에 의자를 설치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임.

(A Paris 22호, 2007. 3)

한줄 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남미 최대 규모의 수족관 건설 추진
·수족관 건설에 6500만 헤알(약 28억 2600만 원) 투자 예정
- 2007년 4월 공공과 민간분야의 협력 강화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10개년 계획인 ‘리우데자네이루市 성장 플랜’ 발표
·향후 10년 동안 2500만 명의 관광객 방문과 70억 달러(6조 5000억 원)의 관광 수익 달성 추진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을 ‘나무심기의 해’로 제정
·연간 2만 5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환경교육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

11. 영·유아 성장을 돕는 ‘가정 강화 프로그램’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市는 유니세프(UNICEF), 크리스천 청년협회, 월마트와 협력해 2007년 4월부터 0~6세 영·유아의 원활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포르투알레그레 가정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함.
- ‘브라질 가정 강화’ 안내 책자를 홍보하고 배부할 예정임.
·안내 책자는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필요한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5개의 세트 구성됨.
·보건 및 정보 혜택이 열악한 빈민층 10만 가구에 제공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도입 초기단계에는 50명의 전문 요원이 도와줌.

- 이 프로젝트는 쿠리치바市, 상파울루市 등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市는 총 1000여 명의 요원을 교육할 계획임.

(www2.portoalegre.rs.gov.br/cs/default.php?reg=72748&p_secao=3&di=2007-04-09)

12. 피임 비둘기집 설치 (파리)

- 비둘기의 위생상태를 관리하고 비둘기 배설물을 청소하며, 특히 무분별한 번식을 막을 목적으로 파리市 11區에 피임 비둘기집을 설치함.

- 비둘기집에 한 쌍의 비둘기를 넣고 첫 번째 산란을 지켜본 후, 다음 산란기에는 심하게 충격을 줘 더 이상의 번식을 막음. 그 다음에는 얼마간 시간적 여유를 줘 비둘기가 비둘기집을 떠나지 않도록 함.

·이런 방법을 통해 1년에 6~8번 정도 되는 산란을 1번으로 줄임.

- 2007년 3월 초에 60마리의 비둘기를 포획해 4~5주 동안 피임 비둘기집에 적응시키고, 4월 초에 다시 이 비둘기집을 개방해 피임 비둘기집에 길들여진 비둘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피임 비둘기집은 14區 베호생제토리 거리에서 시험적으로 설치됐는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음. 파리市는 점진적으로 각 區에 피임 비둘기집을 설치할 계획임.

(www.paris.fr/portail/viewmultimediacdocument?multimediacdocument-id=27951)

13. 숲에서 펼쳐지는 ‘자연·철인경기’ (독일)

- 독일에서 가장 큰 자연·체육 이벤트인 ‘자연·철인경기’가 2007년 7월 22일~8월 4일까지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 숲에서 시작해 1800km 떨어진 베를린까지의 여정으로 열림.

- 자연·철인경기는 8개 팀 32명이 독일 전역의 여러 숲에서 사이클, 수영, 인라인 스케이트, 조정, 마라톤 등의 종목을 통해 강인한 체력을 겨루는 행사임. 팀 화합도와 자연적응 능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자연을 사랑하는 18세 이상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을 할 수 있음.
 - 2007년 5월 18일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부문 경쟁을 통해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대표로 참가할 선수를 결정함.
 -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04/nachricht2607.html)

한줄 뉴스

<도쿄>

- 폭넓은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제18기 자연환경보전심의회 위원 7명 전원을 공개 모집으로 선출했으나 자연보호단체에서 반발
 - 기존에는 7명 중 4명을 자연보호단체에서 선출했음. 자연보호단체는 위원 전원을 공개모집하면 都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심의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
- 3선에 성공한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가 도쿄 올림픽 유치와 쓰키지 시장(市場) 이전 등 선거공약 조기 실현을 강조

14. 의료안전 지원센터 설치 (도쿄)

- 도쿄都是 2001년 5월부터 일본에서 처음으로 환자 상담창구를 설치해 환자 중심의 의료를 추진해오고 있음.
 - 2007년 4월 1일에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안전 지원센터가 제도화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설치해 온 환자 상담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보건국 및 다마(多摩) 지역 5개소에 있는 도쿄都 보건소에 지역의 의료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거점으로 의료안전 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임.
 - 사업내용은 환자 상담창구, 지역 의료안전을 위한 협의회 설치, 의료기관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안전 정보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안전 관련 자질향상 연수 실시 등임.
 -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4/20h42200.htm)

15. 노인과 장애인 세대 대상 대형쓰레기 반출 서비스 (일본 히노市)

- 일본 히노(日野)시는 노인과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대형쓰레기를 실외로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함. 기존에는 대형쓰레기 반출 지정장소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市 직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대형쓰레기 처리 대행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야 했음.
 - 히노市 환경공생부 쓰레기제로추진과 담당자는 “대형쓰레기 반출 서비스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힘.
 -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사는 세대와 1·2급 신체장애인임. 반출 서비스는 무료지만 쓰레기 처리요금은 기존대로 구청에서 스티커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불함.

(요미우리신문, 2007. 4. 6)

16.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개조사업 시행 (북경)

- 2007년 내에 북경동물원, 옥연담 공원, 동구묘 등 11개 공원유락단지가 장애인이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 보조시설을 개조하기로 함.
 - 북경市 기획위원회는 2007년 4월 10일 공포한 ‘2007년 장애 체로시설 건설과 개조 계획’을 통해 지침을 정함.
 - 올림픽 경기장 주변도로와 관련 지역에도 2007년 안에 200대의 맹인보행 안전 시스템과 횡단보도 음성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자금성과 만리장성, 야생동물원 등도 장애인 보조시설을 설치하는 개조공사를 하며 장애인 관련 단체를 통해 22대의 장애인 전용 승합차를 배치함.
 - 공항 국내선 청사와 환승구역에도 낮은 안내대와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설치되고 시내 3성급 이상의 모든 호텔에 장애인 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北京晚報, 2007. 4. 11)

도 시 환 경

17. 오염 취약층에게 대기오염 정보 제공 (런던)

- 런던市는 오염에 취약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대기오염 정보 알람 서비스 (airTEXT)를 시행함. 이미 런던 남부 크로이던(Croydon)區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음.
 - 오염 취약층에게 휴대전화 문자·음성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오염 정도에 따라 야외운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제공함.
 - 폐기종, 천식, 심장질환을 앓는 시민은 대기오염 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www.airtext.info)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로 등록할 수 있음.
 - 런던시내 각 구청에서 알람 서비스를 시행하므로 등록할 때 해당 자치구를 선택해야 하며, 정보제공 시점은 아침과 저녁 시간대 중 선택할 수 있음.
 - 1999년 케임브리지 환경기술단(CERC: Cambridge Environmental Research Consultants)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오염예측 기술을 활용해 2005년부터 크로이던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참가자 중 80%가 대기오염 알람 서비스 덕분에 병세가 호전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 사업은 유럽연합이 재정을 지원하고 국제 전문가와 런던市 및 자치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인 PROMOTE에서 담당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390)

>>> 전문가 검토의견

- 최근 황사, 시정(視程) 장애, 광화학 옥시던트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오염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미세먼지의 노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출을 삼가는 등 사전에 차단하는 것임.

- 대기오염 노출을 사전에 막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에 그치지 말고 예·경보시스템 체제를 적절히 가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런던市에서 대기오염 취약층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하는 오염 예보제도는 그만큼 의미가 있음.
- 2005년 2월부터 국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먼지예보제도는 미세먼지 예·경보센터 홈페이지(dust.seoul.go.kr)를 통해 하루 전에 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제도로, 시민들은 다음 날의 먼지 예상수치를 보고 운동, 빨래, 등산, 외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향후 계절별로 특성화된 먼지예보 모델을 개발해 예보모델의 정확도를 한층 향상하고, 서울시 미세먼지 예·경보제도를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8. 건설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제안 (영국)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매년 영국에서 발생하는 1억 900만 톤의 건설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5만 파운드(약 4억 64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모든 건축·토목·재개발 공사에 대해 ‘현장 폐기물 관리계획’(Site Waste Management Plan)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작성함.
- 현장 폐기물 관리계획 작성 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로와 재사용·재활용 계획, 처리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야 함. 특히 개발과정 단계별로 폐기물 관리 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공사현장에서는 좀더 상세한 내용의 폐기물 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제안함.

(Planning, 2007. 4. 3)

>>> 전문가 검토의견

- 주로 매립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영국의 특성상 처리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국토 활용 측면에서 건설폐기물은 국가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존재로 부상되는 것으로 보임.
 - 건설업자의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인 공사현장은 모두 계획서 작성 대상이므로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이 규정에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시행되면 공사현장에서의 적정처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리라 판단됨.
- 우리나라는 30만㎡ 이상의 택지조성 공사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스스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모두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이미 갖췄음.
 - 만약 영국과 같은 공사규모까지 적용한다면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이 계획서 작성대상이 되는데 부지가 협소한 서울의 특성상 지금보다 더 나은 처리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유기영 도시환경부 연구위원(keeyy@sdi.re.kr)

19.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 (캘리포니아주 베니스市)

- 캘리포니아주 베니스市 주민회는 도시가 어두워 불편하다며 가로등을 설치해 줄 것을 지난 4년 동안 베니스市에 요구해 왔음. 주민회는 여러 차례 조사와 회의를 거쳐 전력이 적게 소모되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市에 제안했으며 市에서 시범적으로 1개의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함.
 - 기동 꼭대기에 축전지와 태양전지판이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은 낮에 태양광으로 발전(發電)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가로등이 켜지는 시스템임. 충전의 가로등보다 밝기는 덜하지만 주택가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주민들이 말함.

- 에너지 효율 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태양광 가로등은 아직은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몇 개밖에 설치되지 않았지만 市 관계자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www.latimes.com/news/local/los_angeles_metro/la-me-localgovtqa2apr02,1,1537663.story?coll=la-commun-los_angeles_metro)

한줄 뉴스

<영국>

- 교통부와 지역사회·지방정부부, 거리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설계지침인 '거리설계편람'(Manual for Streets)을 공동제작해 배포
 - 주거지역의 거리계획, 디자인, 공급 및 허가에 관한 제반 행정절차와 정부지침 수록
- 모든 공공공간을 금연지역으로 지정
 - 웨일스는 2007년 4월 2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
- 뉴캐슬대학, 고급인재 유출이 도시의 계층 분화를 심화하고 경제성장도 위협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20. 가정용 소형발전기 설치 촉진 (영국)

- 영국 정부는 소형 풍력발전기나 태양집열판을 이용한 가정용 소형발전기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시계획 허가를 면제하고 현행 도시계획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컨설팅 결과를 발표함.

- 소형발전기 설치가 이웃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 정부 관계자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미래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소형발전기의 소음 및 크기 문제, 설치 위치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소형발전기 설치에 대한 정부백서가 2007년 5월에 준비되면 구체적인 도시계획 관련 입법이 구체화될 예정임.

(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966711.html)

21. 거리 금연 조례 시행 (도쿄都 치요다區)

-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범칙금 부과 조항을 둔 거리 금연 조례를 시행하는 도쿄都 치요다(千代田)구는 조례 시행 후 징수한 과태료가 4년간 약 6768만 엔 (약 5억 4144만 원)이라고 발표함.
 - 거리 금연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區의 ‘생활환경 조례’에서 규정함.
 - 오테마치(大手町)역 주변 등 10개소를 거리 금연 지구로 지정했는데, 이는 황궁을 제외한다면 구내 면적의 60% 이상에 해당함.
 - 이 조례는 거리 금연 지구에서 흡연하거나 궤초를 함부로 버리면 2만 엔 (약 16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치요다區는 당분간은 2000엔(약 1만 6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한 과태료는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계상함.
 - 치요다區는 아키하바라(秋葉原) 지구에 있는 4군데의 가로수 밑을 버려진 담배꽂초 수량 파악장소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담배꽂초 수량은 조례 시행 직전에는 995개였지만 최근에는 10개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음.
 - 2006년 2월부터는 주민 약 160명이 ‘흡연 매너 계몽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음.
 - 치요다區는 2009년까지 황궁을 제외한 구내 전역을 거리 금연 지구로 지정할 예정임.



(東京新聞 인터넷판, www.poisute.com, 2007. 4. 6)

22. 수질감시에 시민 참여 유도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질감시 프로젝트를 발표함에 따라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그룹이 50여 개 장소에서 쿠리치바市에 있는 모든 강의 수질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게 됨.
 - 조제 안토니오 안드레구에토 환경국장은 “쿠리치바市에 있는 강의 수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함.
 - 이 프로젝트에는 21개 시립학교와 3개 주립학교, 3개 사립학교, 1개 사회환경단체, 2개 조합단체, 3개 기업 등이 참가함.
 - 市 환경국 전문가가 모니터링 그룹을 교육하며, 모니터링 그룹은 강 수질 감시 외에도 수질 화학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됨.
 - 환경국은 수질감시를 위해 기온, 산소, 수소이온 지수(pH), 질소 등을 분석할 측정기 세트도 제공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8659)

한줄 뉴스

<런던>

- 2007년 런던 최저생활임금은 시간당 7.2파운드(약 1만 3200원)로 영국 최저생활임금인 시간당 5.35파운드(약 9800원)보다 높게 책정
- 런던의 높은 물가를 고려해 최저생활임금을 정했으며 최저생활임금을 이용해 노사협상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실을 보는 사례 증가
- 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재건축해 관광명소가 된 Tate Modern을 확장하기로 결정
- 런던개발청은 이 공사에 약 14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

도 시 교 통

23. 야구장으로 연결된 대중교통 요금 인하 (볼티모어)

○ 메릴랜드주 교통공사(MTA: Maryland Transit Administration)는 2007년 야구시즌을 맞아 야구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함.

- 교통공사에서 지정한 주차장에 주차하고 직행버스로 경기장까지 가는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요금제도의 경우, 성인 기준 왕복요금이 12달러(약 1만 1100원)에서 10달러(약 9200원)로 인하되고 청소년(6~16세)은 6달러(약 5500원)에서 5달러(약 4600원)로 인하됨.

·MTA는 볼티모어 오리올스 팬의 절반 이상이 이 요금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함.

- 교통공사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팬들을 위해 왕복 3.5달러(약 3200원)의 1일 통행권(Day Pass)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지하철과 경전철은 오리올스 홈경기가 있는 날에는 야구 팬들을 위해 경기 종료 후 1시간까지 연장운행할 예정임.

(www.mtmaryland.com/news/press/index.cfm)

24. 자전거 이용자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런던)

○ 지난 6년 동안 72% 가량 증가한 런던 시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런던시는 자전거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화물차량과의 충돌·추돌 사고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임.

- 대형 화물트럭을 만드는 포드사는 트럭 2000여 대에 런던교통공사가 제작한 경고문구인 “자전거 운전자 여러분, 옆으로 대형 화물트럭이 달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를 달고 운행함.

·경고문구는 대형 화물차가 우회전할 때 도로 안쪽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 운전자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만듦.

- 경고문구 이외에 자전거 및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가 같이 등장하는 ‘조심 운전’ 포스터도 제작해 런던 시내 주요 도로에 게시할 예정임.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4749.aspx)

한줄 뉴스

<상해>

- 市 상무위원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9월 22일을 ‘차 없는 날’로 지정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참여도시가 1322곳에 이룸.
- 11개의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 확장 및 기능 이전 추진
·Lingang이라는 신도시는 개발이 완료되면 10개의 대학교와 다수의 공업단지, 5.6km²의 인공호수가 들어설 예정

25. 11세 이하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무료 (런던)

- 런던시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스포츠·레저 시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2007년 4월 1일부터 11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요금을 받지 않기로 함.

- 이를 통해 약 50만 명의 어린이가 지하철, 버스,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게 됐고, 저소득층 가정의 재정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18세 이하의 학생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市 관계자가 말함.
- 런던시장은 이 정책과 관련해 런던의 성장과 성공을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수단으로 교통요금 무료 정책을 펴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413)

26.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전략 시행 (영국)

-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는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전략을 곧 시행할 예정임.
 - 교통부 장관은 이 기술전략을 통해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중화물차와 경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기술전략을 시행하는 이유는 교통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돼야 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임.
 - 현재 평균 1km마다 이산화탄소가 167g 배출되는데, 1km마다 10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새로운 자동차 개발이 필요하다고 市 교통부가 밝힘.

(Planning, 2007. 4. 2)

27. 시각장애인 보행 보호를 위한 가이드 밴드 설치 (파리)

- 파리市는 시각장애인이나 사물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보행로나 건널목에 가이드 밴드를 설치함.
 - 가이드 밴드는 교차로 중앙이나 통행로가 대지보다 낮은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재료를 가지고 실험한 뒤 제작됨.
 - 발이나 다리에 닿는 촉감으로 인식되는 이 밴드는 보행자가 출발할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됨.



(www.paris.fr)

도시계획·건설·주택

28.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是 경관법 시행 및 도쿄都 경관심의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도쿄都 경관 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都의 경관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관법을 활용한 신청제도, 경관이 중요한 공공시설 지정, 도쿄都의 독자적인 시책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담은 것임.
 - 이 계획은 5가지 영역별로 경관 특성을 설정하고 있음. 5가지 영역은 핵심 재생, 도쿄만 워터프런트(waterfront) 활성화, 도시환경 재생, 도시 광역연대, 자연환경 보전·활용 영역임.
 - 특히 문화재나 역사적 시설이 있는 지역과 특이한 경관이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조성 특별지구(문화재 정원 등 경관조성 특별지구, 수변 경관조성 특별지구)로 지정해 건물높이, 벽면 색채, 광고물 등도 규제함.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7/03/70h3t200.htm)

한줄 뉴스

<일본>

- 고이다라市, 전철 터널 위에 비오톱 공원 조성
 - 시민이 물과 친숙해지면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
- 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단체 ‘전국 시민옴부즈맨 연합회의’가 일본 도시의 2007년 정보공개도 순위 발표
 - 1위는 나가노縣으로 정무조사비(政務調査費) 전체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 활동보고서 제출

29. 도시재난 관리체제 구축 (영국 에식스市)

○ 영국 정부는 에식스市(Essex County Council)를 제8회 우수자치단체상(The Beacon Scheme) 비상계획(Emergency Planning) 부문 수상단체로 선정함.

- 해안도시인 에식스市는 오래전부터 재난관리 대책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왔음. 각 구청과 파트너십관계를 구축하고, 市 자체조직과 산하기관의 고위 간부가 재난관리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확보했음.
- 시청과 구청 간 연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단체, 민간기업 등에 재난대비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관리 계획과 집행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제를 구축함.
- 재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재난관리 조직 간 연계를 구축한 점과 재난이 발생할 때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시행해 이재민 구호·지원 서비스를 개선한 점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임.

(www.beacons.idea.gov.uk/idk/aio/6091126)

(www.essexcc.gov.uk/microsites/essex_resilience)